

전국 휘발유값, 1700원 돌파... 하반기 고공행진 이어가나

지난 14일 휘발유 리터 당 1724.3원·경유 1526.0원
6주째 상승...수요 최고·재고 감소로 당분간 오를 듯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째 상승세인 가운데 이달 중 석유수요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제품 재고 감소세에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이 전망돼 국내 기름값 역시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0(리터)당 1724.3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첫주에는 전주 대비 0당 51.1원 상승한 1603.8원을 기록하며 1600원대를 넘어섰다. 둘째주 1695.0원으로 오른 뒤 셋째 주에 진입하며 1700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0당 1581.7원으로, 지난주 평균 가격인 1526.0원보다 50원 넘게

올랐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5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이번 주 들어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 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 사항 및 주간 석유제품 재고 감소 발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유조선 공격, 석유 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지난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2 달러(2928.20원) 오른 배럴당 88.0 달러(11만7128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달 중 석유수요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월간 석유시장보고서에서 6월 석유수요가 하루 1억3000만배

럴로 사상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도 석유 증가로 최대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IEA에 따르면 석유수요 증가는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높은 흐름을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기에 여름 휴가를 맞은 관광객들의 항공수요, 중국의 수요 확대 등이 더해졌다. 올해 전세로도 하루 평균 1억220만배럴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수요는 오르고 재고는 감소하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재고도 감소하고 있는만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들어 추가라도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개편된 '알뜰주유소' 공급사로 SK에너지와 에스오일



이 선정됐다.

이로써 SK에너지와 에스오일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30일까지 2년 동안 내수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들은 이미 2019년부터 알뜰주유소 물량을 담당해온 경험이 있

다. 다만 알뜰주유소는 최저가 낙찰제인 만큼 마진이 크게 남지 않는다. 납품가격을 변경할 수 없어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변용일기자

“없어서 못 판다”...항공업계, ‘굿즈’로 수익 다각화

제주항공 ‘잔망루피’ 상품...완판행진



항공사들이 여객·화물 매출 이외의 수익 다각화를 위해 기획상품(굿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제주항공의 기획상품 판매량은 3만574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162개 대비 36.6% 증가했다. 이는 항공 수요가 높았던 2019년 동 기간 1만7093개의 기획상품이 판매된 것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주요 고객인 MZ세대(1980년대 초~

2000년대 초 출생)를 겨냥한 상품이 호응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은 최근 ‘잔망루피’ 캐릭터를 모델로 기용해 모형비행기, 승무원 인형, 트래블 레디백 등을 출시했다. 이 제품들은 출시 이후 1~2차 기획상품 모두 초도 물량이 완판됐으며, 지난 6월 출시한 3차 기획상품 또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제주항공 기획상품 중 67.6%가 잔망루피 기획상품이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제주항공은 지

난 5월 만료였던 잔망루피의 모델 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CI올리브영과 손잡고 여행 필수품 세트인 ‘뷰티레스트 에디션’을 제작해 판매했다. 박스형 파우치 안의 수면 안대와 소음 방지용 귀마개, 천 소재 머리 끈, 미니 타월 등 비행에 필요한 제품들로 채웠다. 이 제품을 구매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교환권도 얻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편 항공사 고유의 매력을 알리는 PB상품도 다수 출시 중이다. 에어서울은 지난달 자사의 로고를 담은 상품 3종을 신규 출시했다.

이밖에 새로 출시한 상품은 ‘에어서울 비행기 블록 세트’와 ‘에어서울 펫 티셔츠’, ‘에어서울 펫 케이프’다. 특히 블록 세트는 항공기 동체는 물론, 공항 활주로를 떠올리게 하는 토잉카와 케이터링 카,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피규어 등으로 구성됐다.

항공사들은 기획상품 판매를 통해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큰 영향을 받는 여객·화물 수요 매출 외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항공기 운항이 급감해 여객 수요가 줄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항공사들은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해 이전에 없던 기획상품을 다수 출시하기 시작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획상품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에 브랜드 선호도까지 높이는 결과를 얻고 있다”며 “항우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와의 콜라보 상품 출시가 잦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코지마, 안마의자 SSG닷컴 단독 출시



종합 웰스케어 기업 코지마가 합리적인 가격에 특유의 성능과 기능을 담은 가성비 안마의자 ‘에디스’를 SSG닷컴에서 단독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의 안마의자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 ‘헬스 플래저’ 트렌드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기기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헬스 플래저는 ‘건강한(Healthy)’와 ‘즐거움(Pleasure)’이 합쳐진 단어로 즐거운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에서 단독 출시하는 신제품 ‘에디스’는 합리적인 가격에 코지마의 핵심 기능을 한데 담은 가성비 안마의자다.

안마 과정에서 빈틈이 생기는 일자형 프레임과 달리 LS프레임을 적용해 어깨부터 허벅지까지 신체 굴곡에 따라 빈틈없이 밀착된 마사지가 가능하다. 또 2단계로 나뉘어진 무중력

각도를 통해 마사지에 최적화된 자세를 구현해 줘 안마부와 신체 간의 밀착감을 높인 마사지를 제공한다.

마사지 기능도 다양하다. 슬라이딩 기능으로 경직된 상·하체를 이완시켜 줘 굳은 몸을 풀어준다. 최대 5단계까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신 에어 마사지 기능은 어깨나 팔, 다리 등 신체 곳곳을 고루 압박해 줘 시원한 안마감을 선사한다.

편의성도 돋보인다. 최대 22.5cm까지 늘어나는 다리길이 조절 시스템을 탑재해 장신의 사용자도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팔 안마부 양쪽에는 리모컨과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도 있다. 또 탈부착형 패드 및 커버가 적용돼 쉽게 청소와 교체가 가능하다. 이밖에 베이지와 브라운의 컬러 조합으로 인테리어 요소까지 겸비했다.

코지마는 SSG닷컴에서의 단독 론칭을 기념해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소비자가 대비 63%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또 사전 예약 중 신제품 구매 후 포스트 상품평을 작성한 고객 전원에게 보관 및 관리에 용이한 안마의자 커버를 증정한다. 또 내달 5일 오전 11시 SSG 라이브를 진행해 소비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제품은 내달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할 예정이다.

김경호 코지마 마케팅부 부장은 “최근 가성비 높은 안마의자를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 개발과 채널 다양화를 통해 고객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사과 고르기 어렵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서 한 소비자가 사과를 고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채소값이 치솟은 가운데 과일도 생육 부진으로 사과 20%, 배 27% 등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전, 7월 전력 정산단가 5.2% 상승

한국전력이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면서 3분기에는 흑자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던 중 지난달 정산단가가 전년 동월 대비 5%대 상승했다. 최근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인상된 만큼 다시 역마진 구조가 되는 것 아닌지 주목된다.

15일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지난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정산단가는 kWh(킬로와트시) 당 145.61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정산단가는 전력거래금액을 전력거래량으로 나눈 값이다. 정산단가는 지난해 8월 170원대까지 오른 뒤 올해 1월 162원에서 다시 3월 170원까지 올랐다. 이후 4월부터 다시 하락, 5월 118원까지 떨어지면서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분위기다.

6월 약 126원에 이어 145.61원으로 올해 저점 대비 약 23% 올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량은 감소한 반면

시장가격은 상승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지난달 평균 시장가격(SMP)은 kWh 당 153.52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반면 전력거래량은 4만9458GWh로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다. 평균 기온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력거래 금액은 7조831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했다.

최근 국제 LNG가격이 상승한 만큼 정산단가도 하락세를 멈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5월에 정산단가가 하락하다 7월 다시 상승하는 상황에서 앞서 국제 LNG가격이 지난해 대비 10분의 1로 떨어지자 최근 반등하고 있다”며 “LNG 가격이 전기요금에 5~6개월 후행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5월 최저치 아래로 더 떨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선욱기자